

전주시, 황방산 3차 유해발굴 조사 추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시굴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

전주시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가 묻힌 황방산에 대한 3차 유해발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해발굴조사 조사단장인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과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등을 비롯한 유족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제3차 유해발굴 시굴조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는 지난해 유해매장추정지 전조사 결과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방산, 강담재, 산정동 3개 지역에 대해 실시한 3차 시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황방산에서 민간인희생자로 추정되는 유

해매장지가 확인됐으며, 산정동과 강담재에서는 유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유해가 확인된 황방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부터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분묘를 실시하고, 이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임하기로 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해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안치해 민간인 희생자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실장은 "지속적인 유해발굴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향후에도 유해발굴 및 희생자의 해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내년도 유



전주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해발굴조사 조사단장인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과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제3차 유해발굴 시굴조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도 듣고 유족들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민간인

'전주다움' 정책특집호 발간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아 시정철학·비전·사업 등 소개

전주시 시청 소식지 '전주다움'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정책특집호를 발간했다.

전주다움 정책특집호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분기별 1종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특별판이다. 이번 11월 호(10월 25일 발행)는 '전주 대변력,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민선 8기 시정철학과 비전, 사업 등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특집'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인터뷰 코너를 마련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속 가쁘게 달려온 100일에 대한 소회를 시작으로



창년 일자리 정책, 주목받는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미래 천년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전주가 지켜 가야 할 전주정신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뿌리인 동화농민혁명의 정신을 전주의 미래 정신으로 만들어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특집'에서는 민선 8기 출범 100일, 전주가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담아 전주의 미래를 준비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았다. '벽을 허물다'에서는 지역발전의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종합경기장·대안방직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쁨을 다지다'에서는 대한민국 일

류도시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등 전주시의 계획을 소개했다. '한 장의 전주'에서는 새 시대를 향해 변화의 첫걸음을 때는 종합경기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연재 코너 '당신과 더불어', '전주사랑, 전주 10미(味)'에서는 전주를 알리고, 전주의 맛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친근하고 감칠맛나게 담았다. '당신과 더불어'에서는 전주완창무대로 돌아온 국악인 유대영양 씨를, '전주사랑, 전주 10미(味)'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주의 맛'을 알리고 사려져 가는 식재를 복원하는 곡유경 전통음식복원가를 만났다.

전주 한복 산업 세계화 가능성 모색

우범기 시장, 밀라노 패션위크 데뷔 황이슬 리슬 대표와 논의

전주시가 세계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국내 한복브랜드 대표와 한복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전주시장실에서 최근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한복을 세계로 알린 황이슬 모던한복 브랜드 리슬 대표와 만나 지역 한복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 출신인 황이슬 대표는 지난

2014년 생활한복 '리슬' 브랜드를 런칭한 기업가로, BTS와 청하, 마마무 등 KPOP 스타의 한복 무대연출을 제작해 K-패션을 전세계로 알렸다. 조스파오 등 패션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며 한복 대중화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특히 황 대표는 평소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복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

로 일반 캐주얼 옷과 한복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제품들을 선보이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국내 한복 브랜드로는 세계 최초로 밀라노 패션위크 무대에서 12차장의 혁신적인 한복을 선보였으며, 미국 경제지 포브스 및 세계 패션 전문가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황이슬 대표는 지난 '2020 한복 문화주간'의 총감독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조성될 한복문화창작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공직자로서 전주 바깥 대표 작품 만들어야"

우범기 시장, 민선8기 첫 국장급 인사 후 간부회의 주제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첫 번째 국장급 인사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전주를 바깥 대표 작품을 만들어볼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했으니 시민이 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면서 "전주를 바꾸는 일에 많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또 향후 이어질 직원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사무실 이전 및 자료 이관 등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말 등을 이용해 금주 내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어수선했던 수 있는 직원들을 잘 다독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과 인사가 안정화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역설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오는 11월부터는 국가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심의됨에 따라 철저한 국가 예산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사로 새로운 전주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실국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전주시를 바꿀 수 있는 업무를 적어도 하나는 해보겠다는 자세로 당당히 일해달라"고 말했다.

청년이음전주서 '멘토링연계 청년취업상담반' 운영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문 취업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올 연말까지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개인상담 및 그룹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연계 청년취업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멘토링연계 청년취업상담반은 1기 12명과 2기 12명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한 청년들은 △MBTI △강점찾기 △희망기업 분석 △개인역량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맞춤형 1:1 상담 △그룹 모의면접 △AI

면접 △현직자 멘토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기관 서류전형 및 면접 경험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문 취업컨설턴트를 연계해 취업성공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멘토링연계 청년취업상담반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공적인 진로설계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문을 연 청년이음전주에서는 청년들의 진로, 취업,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사 경선개입 의혹' 송하진 전 지사부인 등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과,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아내 등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관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아내

등 7명이 이번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000여장의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고, 1만여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도 발견했다. 이후 지난 8월 송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이 모은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유출돼 엑셀 파일로 정리됐고,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화'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동물복지 닭고기

"가족의 건강에 답하다"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